

LESSON 15 Amy (에이미)

NEW WORDS

한국어감추기

<input type="checkbox"/>	1. wheelchair	휠체어	2. teaching assistant	수업 도우미	3. look after	돌보다
<input type="checkbox"/>	4. instead	대신에	5. beside	~옆에	6. realize	깨닫다
<input type="checkbox"/>	7. crayon	크레용	8. trouble	문제	9. hold	쥐다
<input type="checkbox"/>	10. eventually	마침내, 결국	11. difficulty	어려움	12. hand	건네주다

NEW EXPRESSIONS

한국어감추기

<input type="checkbox"/>	1. a girl who came into our classroom	우리 반에 전학 온 소녀	2. many things wrong	잘못된 많은 것들
<input type="checkbox"/>	3. too big to handle	너무 커서 다루지 못하는	4. lying beside her	그녀 옆에 놓인
<input type="checkbox"/>	5. I was very touched	매우 감동을 받았다	6. all the time	항상

READING

Reading 1	Amy was a girl who came into our classroom. She had many things wrong with her. Amy was in a wheelchair, and she couldn't talk. She couldn't move her hands and feet freely. Amy had a teaching assistant who had to stay with her all the time.
Reading 2	One day the teaching assistant couldn't stay with her. I had to look after Amy instead. I was afraid to look after her.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I sat beside Amy, and I smiled at her. She smiled back at me. I never realized before that she had such a nice smile.
Reading 3	Amy made a noise. It seemed like she wanted a crayon that was lying beside her. I put the crayon into her hand. She had trouble holding it, but eventually she got the crayon into her hand well enough so that she could make marks on the paper. Amy spent a long time making marks on the paper. She worked for a long time.
Reading 4	When she was finally done, she picked up the paper with great difficulty. She handed me the picture. It was for me. I was very touched that she spent all that time drawing something for me. I thanked Amy and smiled at her. I told her I loved the picture.
Reading 5	I still have that picture, although I'm not sure what it means. I learned a lot from Amy that day. I saw a brave girl who wouldn't give up. Whenever I think my problems are too big to handle, I think of Amy and I remember her smile.

해석

Reading 1	에이미는 우리 반에 전학 온 소녀였다. 그녀는 잘못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에이미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에이미에게는 수업도우미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그녀와 함께 있어야만 했다.
Reading 2	어느 날 수업 도우미는 그녀와 함께 할 수 없었다. 대신 내가 에이미를 돌봐야 했다. 나는 그녀를 돌보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에이미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시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멋진 미소를 가지고 있었는지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 했었다.
Reading 3	에이미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녀 옆에 놓여 있는 크레용을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의 손에 크레용을 놓아주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결국에 그녀는 손에 크레용을 잘 잡았다, 그래서 그녀가 종이에 표시를 할 수 있었다. 에이미는 종이에 표시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다.
Reading 4	그녀가 마침내 끝냈을 때, 그녀는 매우 힘들게 종이를 집어 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그 그림을 건네주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매우 감동을 받았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그리느라 모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 나는 에이미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그림이 마음에 든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Reading 5	나는 지금도 그 그림을 가지고 있다. 비록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나는 그날 에이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 용감한 소녀를 보았다. 나는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에이미를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미소를 기억한다.